

「百六哀吟」 解題

金 南 基*

1. 머리말
2. 김신겸의 생애
3. 「百六哀吟」의 체재와 성격
4. 「百六哀吟」의 가치

1. 머리말

「百六哀吟」¹⁾은 金信謙(1693~1738)이 1722년(경종 2) 壬寅獄事로 함경도 安邊에 유배 가서 家人 및 師友 등을 그리면서 지은 시이다. 「百六哀吟」이라는 題目은 고난과 액운을 의미하는 陽九百六에서 취한 것으로 시의 총편수와 일치한다. 이 작품은 七言絶句 106수로 이루어져 있는데, 輓詩 내지 懷人詩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김신겸은 〈百六哀吟并序〉에서 이 작품을 詩史라고 언급하였는데, 각편의 詩序에서 해당 인물의 出處行藏을 약술하여 인물의 생애 및 당대의 정황을 살필 수 있다.

우리 문학사에서 역사적 사실이나 인물들을 읊은 시는 매우 많다. 그러나 대부분 편수가 적고, 편수가 많은 경우에도 중국의 역대 인물을 詩化한 것이 대부분이다.²⁾ 따라서 김신겸처럼 당대의 인물 128인을 106수나 되는 長篇連作의 형태로 읊은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百六哀吟」은 당대의 정치적 상황 뿐만 아니라, 老少貴賤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인물들의 행적을 총괄하여 시화하였기 때문에 그 가치가 크다.

2. 김신겸의 생애

金信謙(1693~1738, 숙종19~영조14)은 조선후기의 학자로 자는 尊甫, 호는 檜巢이다. 文谷 金壽恒(1629~1689)의 손자이자 老稼齋 金昌業(1658~1721)의 셋째아들이다. 어머니는 全州李氏 翼豊君 涑의 따님이다. 어려서부터 農巖 金昌協(1651~1708), 三淵 金昌翁(1653~1722), 圃陰 金昌緝(1662~1713) 등 諸父들의 훈육을 받았는데 특히 김창흡의 영

* 필자 : 규장각 특별연구원

- 1) 「百六哀吟」은 『檜巢集』·『檜巢稿』·『百六哀吟』 등 3종에 실려 있다. 本誌에 영인 수록한 것은 『檜巢集』 권2 부분이다. 「百六哀吟」의 체재와 성격, 의미 등에 대해서는 拙稿, 「金信謙의 〈百六哀吟〉에 대하여」(『韓國漢文學研究』第22輯, 韓國漢文學會, 1998) 참조.
- 2) 金時習의 「詠史」(17제 31수, 『梅月堂集』 권2), 申光漢의 「詠史」(65수, 『企齋集』別集 권1) 등 여러 편이 있다.

향은 지대하였다. 김신겸은 楊根 蘖溪, 설악산의 永矢菴 등지에서 김창흠을 隨從하면서 道義와 文章으로부터 事物經變까지를 배웠으며, 김창흠 또한 김신겸의 재주를 사랑하여 임종시에 행장을 지을 것을 명하였다. 閔遇洙(1694~1756)는 이 일을 들어 김창흠의 衣鉢이 김신겸에게 전해졌다³⁾고 하였다.⁴⁾

15세 되던 해인 1707년(숙종 33)에 李頤命(1658~1722)의 사위가 되었는데, 이이명은 김신겸이 역사에 대하여 막힘없이 응대하자 그의 재주를 기특하게 여겼다고 한다.⁵⁾ 1711년 설악산 永矢菴에서 김창흠을 隨從하였고, 1716년과 1720년에 강원도 일대와 도봉산 지역을 유람하였다. 약관에 庠序에 들어갔고, 1721년(경종 1)에 진사시에 합격하였다.⁶⁾ 그러나 스스로 가문이 盛滿하다고 여겨 大科에 나아가지는 않았다.

1721년 12월에 부친상을 당하였다. 辛壬獄事가 일어나 金昌集·李健命·李頤命·趙泰采 등 老論四大臣은 遠地로 유배되었다. 1722년 3월 陸虎龍이 金龍澤·李器之·金省行 등 노론의 子姪들이 임금 시해를 모의하였다는 고변을 올려 노론측 인사들이 다수 사사되거나 유배를 가게 되었다. 金昌集은 거제도에서 국청으로 압송되던 중 星州에서 사사되었고, 金濟謙은 국청을 받은 후 함경도 富寧으로 유배를 갔다가 죽었으며, 金省行은 국청에서 국문을 받던 도중 죽었다. 이때 김신겸은 상복을 입고 金昌集의 적소에 나아가 임종을 지켜보았다.⁷⁾

김신겸은 김창집의 조카이자 이이명의 사위였기 때문에 옥사에 연루되어 1722년 8월 함경도 안변으로 유배를 갔다. 仲兄 彦謙(1686~1738)도 안변 근처인 강원도 歙谷에 정배되었는데 중형과 편지를 주고 받으며 유배의 시름을 달랬다. 9월에 김창집의 장자인 竹醉 金濟謙(1680~1722)의 운구를 安邊에서 전송하였다. 1724년 族叔 金盛全(1663~1734)과 長兄 祐謙(1676~1709)의 아들인 由行(1706~1760)이 찾아와 회포를 토로하기도 하였으나 쓸쓸하고 비통한 유배생활을 보내야만 했다. 적막한 유배 시기에 家人과 師友들을 그리워하면서 지은 작품이 바로 「百六哀吟」이다. 「百六哀吟」은 1723년부터 시작하여 1724년 9월 상순에 마쳤다. 그러나 이 시를 짓고 난 뒤 얼마되지 않아 막내아들 贊行(1718~1724)과 아내가 연이어 죽는 등 불운이 계속되었다.⁸⁾

3) “公學於諸父，而事三淵先生最久，嘗往侍于楊根蘖溪，及雪嶽之永矢庵。自道義文章，以至事物經變之極，靡不精叩熟講，而其雅趣高情，亦泯然相契。故三淵愛予深至，爲父子間知己，而臨沒盡告其平昔入道次第，俾述行狀。蓋衣鉢之托，在此矣。”(閔遇洙, 『貞菴集』 권13, 「檜巢金公行狀」)

4) 그러나 金昌翁의 行狀은 김신겸이 아닌 그의 아들 亮行이 지었다. 『止菴集』 권9에 「三淵先生行狀」이 실려 있다.

5) “十五授室，爲李忠文公頤命之婿，李公與之評史，公應對無礙，李公深奇之。”(閔遇洙, 『貞菴集』 권13, 「檜巢金公行狀」)

6) 辛丑試 同榜及第者 중에서 金光澤(제36수 <德暉>, 金萬重의 손자), 李岳鎮(제39수 <仁甫>, 李植의 曾孫) 등이 「百六哀吟」에 나온다.

7) 1728년에 쓴 「星山遺事」에 이때의 일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8) 아들 지행은 1724년 9월 중순에 죽었고, 아내 이씨도 이해 12월 17일에 죽었다.

1725년(영조 1) 유배에서 풀려난 뒤 孝陵參奉과 內侍童蒙敎官에 임명되었으나 나아가지 않고 은거에 뜻을 두었다. 이것은 숙부 김창흡과 선군 김창업의 지취를 따르는 것이면서 동시에 어렸을 때부터의 소망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김신겸은 어려서부터 중국의 賢者인 陶淵明과 管幼安을 흠모하여 그들의 처세와 절도를 좇고자 하였다. 이후 여주·부여·충주·제천·영월 등지를 유람하면서 知己들을 만나 시문을 수창하였다. 1728년 2월에 保寧의 靑淵에 집을 짓고 거주하려고 하던 중 鄭希亮의 逆亂이 일어나 충청도 제천, 강원도 영월로 피신하였다. 1728년 영월 杏亭⁹⁾ 옆에 樹屋을 짓고 檜巢라고 이름하였다. 檜巢라는 號는 여기에서 유래하였다. 증소에서 학문에 매진하는 한편 후진 교육에 힘썼는데 당시의 從學者들이 檜巢先生이라고 칭하였다. 이때 석학인 閔遇洙·兪肅基·李鳳祥 등과 더불어 人心道心說, 明德說 등을 강론하였다. 또한 증소 주변의 승경 12곳을 서술한 「杏亭諸勝記」, 김창집의 생애와 임종시의 일을 기술한 「夢窩府君遺事」·「星山遺事」를 썼다.¹⁰⁾

1729년 8월 忠州 등지를 유람하고 증소로 돌아왔고, 1730년 가을에 다시 驪州 등지를 유람하다가 충청도 保寧 청연으로 이주하였다. 이후 이곳에 거주하면서 각지를 유람하였다. 1731년 錦江, 충주, 여주 등지를 유람하고, 이듬해 황해도 지역을 유람하였다. 1733년 安眠島 일대 서해 도서를 유람하면서 시문을 수창하고, 「島遊記」를 지었다. 1734년 청연 부근의 聞韶洞을 유람하고, 1735년 경기 북부와 황해도 지역을 유람하였다.

1738년(영조 14) 2월 7일에 죽었다. 이때 나이 46세였다. 충청도 結城 槐谷面에 장례지냈다가 1752년에 경기도 陽智 壺口山 아래로 遷葬하였다. 부인 이씨는 長湍에 장례지냈다가 이때에 歿하였다. 사후에 吏曹判書 兼 祭酒에 추증되었고, 文敬을 賜諡받았다. 저서로는 『檜巢集』¹¹⁾ 10권 5책이 전한다. 부인은 이이명의 따님으로 안변 배소에 동행하였다가 1724년 12월에 죽었다. 아들은 亮行과 贊行이 있다. 행장은 친구인 閔遇洙가 지었고, 묘지명은 죽증손인 臺山 金邁淳이 지었다.

-
- 9) 杏亭은 영월군 客館 북쪽에 있던 梅竹樓 舊基에 새로 지은 정자이다. 梅竹樓는 端宗이 영월에 유배된 뒤 이 누대에 올라 「咏鵲」 시를 읊은 이후로 子規樓로 불리웠다.
- 10) 『檜巢集』 권10 「星山遺事」 뒤에 실린 「農巖府君遺事」와 「老稼齋府君遺事」도 이때에 쓴 것으로 보인다. 김신겸의 「星山遺事」는 『遺教』에 수록된 「임인유교」, 『壬寅遺事』에 수록된 「夢窩星州遺教」에 국문 필사본으로 전하기도 한다. 金壽恒·金昌集·金濟謙 祖父孫 3대의 『遺教』에 관해서는 李昇馥의 「『遺教』의 書誌와 文學의 性格」(『奎章閣』20, 서울大學校 奎章閣, 1997)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 11) 『檜巢集』은 10권 5책의 필사본으로 남아있지만 序跋이 실려 있지 않아 편자와 필사 연기는 알 수 없다. 권1~권6에 시 693수(다른 사람의 原韻詩는 제외), 권7~권8에 書 19편, 祭文 42편, 序 4편, 記 8편, 권9에 題跋 7편, 行狀 4편, 哀辭 6편, 권10에 墓誌 4편, 墓表 4편, 遺事 4편이 실려 있다.

3. 「百六哀吟」의 체재와 성격

「百六哀吟」은 현재 奎章閣에 3종의 이본이 소장되어 있는데, 『檜巢集』·『檜巢稿』·『百六哀吟』이 그것이다. 『檜巢集』(〈古 3428-73〉, 10권 5책)은 김신겸 사후에 家藏 原稿를 淨寫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編者와 筆寫 年紀는 미상이다. 『檜巢稿』(〈奎 5355〉, 1책)는 後學 朴永世가 『檜巢集』에서 「伯父夢窩府君行狀」·「夢窩府君遺事」·「星山遺事」·「百六哀吟」을 선발하여 필사한 것이고, 『百六哀吟』(〈一簣 古 920.051-B146〉, 1책)은 『檜巢集』에서 「百六哀吟」만을 뽑아 별책으로 만든 것이다.

세 본 모두 필사본으로 10행 20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의 순차와 내용은 동일하다.¹²⁾ 일부 작품에 細註¹³⁾와 校勘,¹⁴⁾ 追書¹⁵⁾ 등이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 校勘을 통하여 추정할 때 필사의 저본으로 삼은 원고 이외에 다른 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84수 〈程洪〉아래에 “丁未(1727)八月追書”라는 부기가 있는데, 이를 통하여 김신겸은 1724년에 「百六哀吟」을 완성하고, 이후에도 일부 작품에 대하여 산삭이나 補書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百六哀吟」은 김신겸이 辛壬獄事로 말미암아 1722년(경종 2)부터 1724년까지 함경도 안변 배소에 머물면서 지은 작품인데, 몇몇 작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724년에 지은 것이다. 일례로 宋奎濂(1630~1709)의 長子인 宋相琦(1657~1723)를 읊은 제67수 〈宋判書〉의 詩序에 “壬寅年(1722) 康津에 유배되었다가 금년(1723)에 적소에서 돌아가셨다(壬寅竄康津, 今年卒於謫所)”라는 기록이 적혀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은 1723년에 지은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宋相琦를 읊은 〈宋判書〉가 제67수에 실려 있는 것으로 보아 「百六哀吟」은 처음부터 체계적인 詩作을 염두에 두고 지은 것이 아니라, 일부 시를 짓다가 뒤에 커다란 체계를 세운 뒤 시를 짓고 전체의 체재에 맞추어 재편집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신겸은 작품을 완성한 뒤 1724년 9월 〈百六哀吟并序〉를 지어 작품의 체재와 목적, 성격을 밝혔다.

나는 가혹한 화¹⁶⁾를 입은 이후로 온갖 일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은 지 오래되었다. 鐵嶺

12) 제1수 〈送老庵〉小序의 “葛稚川曰, (….) 風珮泠泠, 洞陰清清”이 『檜巢稿』에 “葛稚川曰, (….) 洞陰清清 珮泠泠泠”으로 잘못 필사되어 있는 등 약간의 글자 출입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나머지의 내용은 동일하다. 그리고 『檜巢集』目次 중 閔翼洙를 읊은 〈閔士衡〉(제31수) 아래에 “翼洙·昌洙”라 부기되어 있으나 閔昌洙는 〈閔聖會〉(제30수)에 적어야 옳다.

13) 제1수 〈送老庵〉아래에 “明月磯, 釣臺名”, 제6수 〈百淵〉아래에 “鳳頂峰名, 五色嶺名”이라고 하는 등 여러 작품에 세주가 부기되어 있다.

14) 제73수 〈崔進道〉아래에 “多一作諸”로 교감이 되어 있다.

15) 제84수 〈程洪〉아래에 “乙巳(1725)自登州歸, 譯官申之淳言, 度容昨年訪見, 渠輩流涕曰, 稼齋金老爺已辭世, 其兩子亦以禍故流落遠方云, 尤可悲也. 趙文命入燕時, 訪見度容, 知其爲先君子女婿, 寄送諫文香幣, 使祭于先君子墓, 其文出於悃悞, 丁未(1727)八月追書”라는 追書가 부기되어 있다.

16) 辛壬獄事(1721년~1722년)를 말한다.

을 넘을 때¹⁷⁾에 대략 서적을 수습하여 가지고 와서 때로 책을 펼치고서 읽었으나 또한 자위할 수가 없었다. 하물며 喪服을 벗은 채, 외진 땅이 더욱 쓸쓸하고 아득함이라? 다만 이 생애가 괴롭기만 하고 하소연할 곳이 없다. 변방이라 일찍 추워지고 긴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니 골육과 친지가 마음과 눈에 삼삼하였다. 李擇¹⁸⁾이 이른 바 “하늘의 화와 사람의 재앙이 이미 거의 지극함을 알겠네.”라 한 것이 또한 오늘날의 일이로구나. 새로운 슬픔과 엉킨 생각이 일어 절로 시가 되었다. 마침내 칠언절구로 지었는데 시 1수당 한 사람에게 속하게 하였지만, 간혹 여러 사람에게 속하게 한 것도 있다. 谷雲(金壽增) 선생 이상(제9수 <華陰洞>)은 삼가 거쳐하던 곳으로 제목을 삼았고, 나머지 季母와 伯氏, 仲氏 이외는 名號와 官爵으로 題名을 삼았는데 오직 뜻가는대로 쓰고자 하였다. 제명을 「百六哀吟」으로 하였는데 陽九¹⁹⁾의 수에 뜻을 둔 것이다. 매 편마다 반드시 小序를 붙인 것은 兒小輩로 하여금 타일에 그들의 출처와 행적을 알게 하고자 한 것이고, 내가 느낀 바는 다만 처음 4~5편을 읊는 데에서 시작하여 <自詠>으로 끝을 맺었다. 그러나 그 중간에 순서가 자세하고 소략한 것도 있고, 노소와 귀천에 구애받지 않고 하였으니 또한 뜻이 없는 것은 아니다. 뒷날의 군자들이 골육과 사우 사이의 의리의 돈독함을 취하여서 세상 변고의 참담함을 비통하게 여긴다면 거의 또한 나의 본래 뜻을 얻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가히 詩史라고 할 만하다.

갑진년(1724) 9월 상순에 登州(安邊)에 유배온 손이 쓰다.²⁰⁾

「百六哀吟」은 권수에 <百六哀吟并序>가 나오고, 詩題-詩序-詩의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김신겸은 여러 인물들의 출처와 행적을 서술하고 이를 시화하여 뒷날의 사람들로 하여금 친지와 사우간의 의리의 돈독함과 옥사의 참상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百六哀吟」을 짓는다고 하였다. 후손인 金甯漢도 「百六哀吟」은 辛壬獄事 당시의 정황과 憂國傷時하는 시인의 마음이 오롯이 담겨 있으며, 시가 悲壯하고 悽惋하여 屈原과 賈誼의 遺響이라고 평하였다.²¹⁾

17) 金信謙은 1722년 8월에 형 彥謙과 함께 상복을 입고 아버지 金昌業의 무덤에 성묘하고 철령을 넘어 안변으로 유배를 갔다.

18) 미상. 擇之가 字인 사람은 李苻(1478~1534), 李選(1632~1692), 李澤 등이 있다. 이 중에 李澤은 金光斌(1616~1664)의 사위이다. 광식은 尙憲의 동생인 尙宓의 아들이다.

19) 陽九는 고대 術家들의 학설로 재난과 액운을 말한다. 陽九百六이라고도 한다. 『易』에 “九扈曰, 初入元, 百六陽九, 次三百七十四陰九”가 나온다.

20) “余自酷禍以來, 萬事不入心久矣. 踰嶺時, 略收書籍以來時復展讀, 而亦無以自慰. 況衰麻去身, 穹壤益廓然, 忽忽茫茫. 只覺此生之爲苦, 而無所告訴, 關塞早涼, 夜長無眠, 骨肉親知, 森然於心目. 李擇之所謂, “天禍人殃, 已覺殆盡”者, 又是今日事也. 新哀滯思之發, 自成韻語. 遂以七絕, 一首屬一人, 或屬數人. 谷雲先生以上, 謹書所居, 自餘季母伯仲氏外, 名號官爵, 惟意欲書, 而名曰, 百六哀吟, 以值陽九之數也. 每篇必係小序者, 欲使兒小異日知其出處行蹟, 而余之所感, 特起於首吟四五篇, 終於自詠. 然其中間序次詳略, 不拘少長貴賤, 亦不無意義. 後之君子有取, 其骨肉師友之間義篤焉, 而痛其世變之愷, 則蓋亦得之矣, 而此可爲詩史焉爾. 甲辰(1724)九月上澣登州 纛客書.”(『檜巢集』 권2, <百六哀吟序>)

21) “嗚呼! 此我族祖 檜巢先生述懷詩也. 先生值壬寅之禍, 坐流北塞, 愍念宗國之綴旒, 傷痛家門之傾覆, 乃發於吟咏者凡百有六章, 而音調悲壯, 語義悽惋, 有屈騷賈賦之遺響. 使人讀之, 不覺斗膽輪因涕泗沱沱,

并序에서 언급한 작품의 체제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²⁾ 먼저 詩題의 경우 “一首屬一人，或屬數人”이라고 언급하였는데 이것은 대부분의 시가 一人一題로 지어졌음을 말한다. 그러나 聖源 閔啓洙와 士會 閔昌洙를 읊은 <聖會>(제30수), 士和 金時侃 4형제를 읊은 <士和四兄弟>(제45수) 등 두 사람 이상을 하나의 작품으로 지은 것도 여러 수 있다.²³⁾ 또한 詩題를 지움에 대부분 名號官爵으로 하였으나 일부는 居處나 자신과의 관계에 근거하여 지은 경우도 있다. “谷雲先生以上，謹書所居”는 金壽恒을 읊은 <送老庵>(제1수)부터 金壽增을 읊은 <華陰洞>(제9수)까지는 거처로 詩題를 삼았음을 말한다. “自餘季母伯仲氏外，名號官爵”은 백씨 祐謙을 읊은 <伯氏>(제10수), 중씨 彥謙을 읊은 <仲氏>(제11수), 舅氏 李杓를 읊은 <舅氏>(제86수), 外曾王母의 侍女였다가 후에 어머니를 따라와 가사를 담당하였던 韓末禮를 읊은 <老嫗>(제99수), 유모 金勝玉을 읊은 <乳母>(제100수), 金昌立의 아내를 읊은 <季母>(제101수), 장모를 읊은 <外姑>(제102수), 자기의 아내를 읊은 <室人>(제105수) 이외에는 모두 해당 인물의 姓名·字號·官職名으로 제명을 삼았음을 말한다. 字號나 관직명으로 시제를 삼은 것은 자신보다 항렬이 높거나 같은 집안 사람 및 師友인 경우이고, 이므로 시제를 삼은 것은 자신보다 항렬이 낮은 집안 사람, 여성, 하층민 등의 경우이다.

대상 인물은 金壽增·金壽恒·金昌集 등 六昌, 자신과 항렬이 같은 金濟謙, 조카인 金純行 등의 친족, 閔遇洙·俞肅基·李健命·權尙夏·閔鎮遠·李宜顯·李緯·金春澤 등의 학자, 위향인·역리·노비·승려 등의 하층민, 김창업이 청나라에 연행가서 만난 중국인은 물론이고 老嫗·乳母·外姑·아내 등 여성까지도 망라하였다. 시의 배열 순서는 대체적으로 祖父代와 父代의 인물, 항렬이 같은 형제, 당대의 학자와 친구, 여러 조카, 하층민 등을 시화하였고, 뒷부분에 老嫗, 乳母, 外姑, 濟謙의 長女, 아들 亮行과 贊行, 아내 등을 읊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自詠>을 두어 시를 종결하였다.

「百六哀吟」 106수에서 읊은 대상 인물은 총 128인이다.²⁴⁾ 수록 인물을 가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安東金氏 52인, 全州李氏 18인, 光山金氏 9인, 驪興閔氏 7인, 楊州趙氏 4인, 南陽洪氏 3인, 平山申氏 3인 등으로 이들 집안의 인사가 압도적으로 많다. 이외에 杞溪俞氏, 竹山安氏, 全義李氏, 延安李氏, 丹陽禹氏, 平山申氏 등이 2인이고, 나머지 海州吳氏, 德水李氏, 豐山洪氏, 潘南朴氏, 林川趙氏, 牛峰李氏, 恩津宋氏, 金海金氏, 延日鄭

詩至於斯，足以備史之闕文也。自古奸凶之禍人家國者，固不可一二數，而蓋莫憐於辛壬矣。(中略) 累讀先生詩，仍淨書一通，遺之兒孫，俾無忘薪膽之義云。黃虎(戊寅年:1938)日南至族孫甯漢敬跋。”(金甯漢, 『及愚齋集』 권12, 「百六哀吟跋」)

22) 「百六哀吟」의 詩次, 詩題, 人物, 生沒年度, 字號, 諡號, 本貫, 文集, 가계 및 참고 사항 등은 말미의 표 참조.

23) 金昌集 등 六昌을 읊은 <六靑軒>(제2수)을 제외하고 2인 이상을 대상으로 하여 지은 시편은 모두 13수이다.

24) 제2수 <六靑軒>에서는 金昌集·金昌協·金昌翁·金昌業·金昌緝·金昌立 등 六昌을 시화하였는데, 이들은 뒤에 다시 시편이 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제외하였다.

氏, 龍仁李氏, 豊川任氏, 林川趙氏, 咸陽呂氏 등이 1인씩 실려 있다. 집안 사람들을 빼고 全州李氏, 光山金氏, 驪興閔氏 등이 많이 실린 것은 이들 집안과의 世交에서 기인한다. 이들 세 가문은 淸陰 金尙憲 이래로 안동김씨와 學脈이나 姻戚 등의 관계를 맺어 그 世誼가 유난히 두터웠다. 李頤命·李健命 등은 김창집과 등과 함께 신임옥사 때에 화를 입었고, 光山金氏와 驪興閔氏는 金萬重과 閔維重 이래로 교유가 활발하였다.

나머지 인물들의 경우도 安東金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부분은 김신겸의 師友이고, 일부는 가사를 돌보았던 여인들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김창흡과 김창업이 교유하였던 인물을 다수 시화한 것도 특기할 만한 부분이다.²⁵⁾ 이것은 先君의 遺志를 받들고, 동시에 스승으로 모셨던 김창흡에 대한 존경을 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신분상 常賤에 속하는 여향인·서자·승려·노비는 물론이고, 집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성들을 시화 대상으로 삼은 것도 특기할 만한 부분이다.

「百六哀吟」에는 다양한 인물과 사건을 여러 각도에서 시화하였다. 시세계는 여러 가지로 범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범주화할 수 있다. 첫째는 家門에 대한 자부와 悲運의 자탄, 둘째는 師友에 대한 그리움과 冤抑의 토로, 셋째는 常賤과 女性에 대한 友誼와 義理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²⁶⁾

4. 「百六哀吟」의 가치

김신겸의 詩風은 「百六哀吟」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대부분 哀怨하면서도 憤懣한 성격을 띠는 것이 많다. 김신겸의 이러한 시풍은 삶의 굴곡 못지 않게 그가 추승하였던 김창흡에게서 받은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김창흡의 시풍은 매우 다양하면서도 많은 변화를 겪었지만 그 속에는 沈鬱하면서도 淸枯한 풍격이 깊게 자리잡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正祖는 김창흡의 시를 治世之音이 아니고 세상에 회자되는 작품도 순전히 침울하고 牢騷한 의태를 보일 뿐 沖和하고 平淡한 기상은 없다고 평하였다.²⁷⁾ 아울러 김창흡은 〈葛驛雜詠〉, 〈槩溪雜詠〉 등 여러 편의 連作詩를 지어 조선후기 詩史에 카다란 파장을 주었다.²⁸⁾ 「百六哀

25) 김창흡의 경우 문인을 제외하고, 그를 모시던 崔春金을 읊은 〈居士〉(제74수)와 금강산 승려로 교유하였던 승려 致雄을 읊은 〈雄師〉(제75수)가 있다. 김창업의 경우에도 중국에 사행가서 만났던 중국인 楊澄과 程洪을 읊은 〈楊澄〉(제83수), 〈程洪〉(제85수)이 있다.

26) 「百六哀吟」의 시세계에 대해서는 拙稿, 앞의 논문 참조.

27) “近世言詩者, 輒推故處士金昌翁, 而余則以爲非治世之音. 其所謂膾炙人口者, 純是沈鬱牢騷意態, 切無沖和平淡氣象. 以鐘鼎子弟, 作窮廬, 口氣固若有不期然而然也. 而後生少年, 切不宜做學.” (『弘齋全書』 「日得錄」 권164)

28) 김신겸이 「百六哀吟」 連作詩를 지은 것은 아마도 김창흡이 개척한 이러한 시체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데에서 기인한 듯하다.

吟」은 바로 김신겸의 고단한 삶과 家學의 반영물이자 결정체라 할 수 있다. 민우수가 變雅와 離騷의 風格에 비겨 김신겸의 시문을 평가하고 질정한²⁹⁾ 것도 이러한 삶의 질곡과 시문의 경향을 파악한 데서 나온 것이다.

「百六哀吟」은 신임옥사로 안변에 유배가서 親族·師友·黨人·主從·女性 등 安東金門과 관련된 인사 128인을 대상으로 하여 七言絶句 106수로 읊은 작품으로, 輓詩 내지는 懷人詩의 성격을 지닌다. 시인의 극한적 슬픔을 長篇連作의 형태로 형상화하였는데 각편마다 詩序를 두어 역사의 실상과 인물들의 애환을 짚히게 그려내었다. 특히 김신겸이 「百六哀吟」을 詩史라고 언급한 것은 이 시의 성격을 짐작하게 한다. 물론 「百六哀吟」 각편은 짤막한 七言絶句 형식으로 되어 있고, 시화한 대상 인물이 安東金門을 중심으로 한 親族·師友·黨人·主從·女性 등에 집중되어 있어 漢詩史에서 자주 언급되는 杜甫나 元天錫 등의 詩作에 비하여 詩史로서의 가치가 적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七言絶句라는 단형의 한시로는 당대의 복잡다단한 역사적 현실을 서사적 맥락으로 견인해내기 어려운 단점을 자체 내에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百六哀吟」은 이러한 敘事性的 결핍을 각편마다 詩序라는 장치를 통하여 해당 인물의 다양한 측면을 서술하고 있어 주목된다. 詩序에는 해당 인물의 字號, 官歷, 言行, 자신과의 관계 및 作詩의 동인 등에 대하여 상세히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詩序의 장치는 역사의 실상과 해당 인물의 출처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각 시편에 결핍된 서사성을 보완해준다는 측면에서 상호보조적인 관계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시작 대상 인물이 安東金門 내지는 그와 관련된 사람들로 국한되어 있어 당대의 역사적 현실을 온전하게 담지하지 못하여 詩史로 언급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을 피해가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그러나 「百六哀吟」에서 다루고 있는 인물들은 黨色으로 볼 때는 특정 집단의 인식을 반영하지만 이 속에는 당대를 대표할 만한 역사적 사건의 실상과 인물들의 총체적 모습을 담아내고 있어 詩史로 언급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모든 문학 작품은 특정 집단 내지는 계급의 입장에 서되 얼마만큼 당대의 진실을 잘 형상화내느냐에 따라 그 가치를 평가받는다. 「百六哀吟」은 단순히 자신의 정파적 입장에서 詩情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당대의 정치적 역학 관계 및 인물들의 갈등을 여실하게 直敘하여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辛壬獄事를 계기로 촉발된 한 시인의 복잡다단한 경험과 감정을 당대의 여러 인물들과 관련지어 다양하게 형상화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百六哀吟」의 작시 대상이 비록 安東金門과 관련된 인물들에 국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대의 총체성, 전형성을 훌륭히 형상화한 詩史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29) “以愚思之，變雅之哀怨，離騷之憤懣，雖出於性情之正，而使孔子孟子，而遇此境界，而發此詠歌，則其措辭命意，果如是而止耶。以是而言，則離騷變雅之作，雖未嘗不出於正，其於聖賢中和氣象，則大故懸隔矣。吾兄既以聖賢爲師，則恐當以涵泳中和，變化氣質，爲第一義諦，此等雖不害於性情之正，亦在所矯治之也。”(『貞菴集』 권6, 「答尊甫書 甲寅」)

「百六哀吟」 관련사항

詩次	詩題	人名	生沒年度	字	號	諡號	本貫	文集	備考
1	送老庵	金壽恒	1629~1689	久之	文谷	文忠	安東	文谷集	金尙憲 孫
2	六青軒	六昌							
3	散襟軒	金昌業	1658~1721	大有	老稼齋·稼齋		安東	老稼齋集	金壽恒 四子
4	瞻栢堂	金昌集	1648~1722	汝成	夢窩	忠獻	安東	夢窩集	金壽恒 長子
5	三洲	金昌協	1651~1708	仲和	農巖·三洲·丹霞	文簡	安東	農巖集	金壽恒 次子
6	百淵	金昌翕	1653~1722	子益	三淵·百淵·葆光	文康	安東	三淵集	金壽恒 三子
7	圃北	金昌緝	1662~1713	敬明	圃陰·圃北		安東	圃陰集	金壽恒 五子
8	洛誦樓	金昌立	1666~1683	卓爾	澤齋		安東	澤齋遺唾	金壽恒 六子
9	華陰洞	金壽增	1624~1701	延之	谷雲		安東	谷雲集	金尙憲 孫
10	伯氏	金祐謙	1676~1709	吉甫			安東		金昌業 長子
11	仲氏	金彥謙	1686~1738	鳴仲	述明齋		安東		金昌業 次子
12	竹醉兄	金濟謙	1680~1721	必亨	竹醉	忠愍	安東	竹醉藁	金昌集 長子
13	誠仲	金純行	1683~1721	誠仲	琴庵		安東		金時保 長子
14	士安	李器之	1690~1722	士安	一菴		全州	一菴集	李頤命 子
15	士元	閔遇洙	1694~1756	士元	貞菴·蟾村	文簡	驪興	貞菴集	閔鎮厚 子
16	觀復兄	金崇謙	1682~1700	君山	觀復菴		安東	觀復菴遺稿	金昌協 長子
17	濟大	金用謙	1702~1789	濟大	匏泉·嘯嘯齋		安東		金昌緝 子
18	彥明兄	金好謙	1681~1699	彥明			安東		金昌集(出) 金昌肅(系)
19	夏瑞	洪龜祚	1683~1716	夏瑞			南陽		洪瑞三子
20	士復	李喜之	1681~1722	士復	凝齋·困齋		全州	凝齋集	李健命 子
21	遺民	金逸謙	1694~1719	遺民			安東		金昌直 長子
22	泰仲	金亨謙	1694~1710	泰仲			安東		金昌說 次子
23	子恭	俞肅基	1696~1752	子恭	兼山		杞溪	兼山集	俞命雄 子
24	信仲	金正行	1682~1727	信仲	松臆		安東		金時傑 次子
25	士信	呂命周	1689~?	士信			咸陽		呂必寬 子
26	澹澹亭	李滌			深源		全州		儒川君
27	學古	金明行	1678~1718	學古			安東		金時澤 子
28	慎甫	安相徽	1691~?	慎甫			竹山		安絃 子
29	仲晦兄	李廷煥	1686~1719	仲晦			全州		李杓 次子
30	聖會	閔啓洙	1671~1720	聖源			驪興		閔鎮長 子
		閔昌洙	1685~1745	士會	詒痴菴		驪興		閔鎮遠 長子
31	士衛	閔翼洙	1690~1742	士衛	夙夜齋	文忠	驪興		閔鎮厚 長子
32	長淵	閔亨洙	1690~1741	士長			驪興		閔鎮遠 次子
		閔通洙	1696~1742	士淵			驪興		閔鎮遠 三子
33	子厚	李德載	1683~1739	子厚			全義		李徵夏 子
34	德老	金鎮成	37세 줄	德老			光山		金長生 4世孫
35	伯玉	吳瑗	1700~1740	伯玉	月谷	文穆	海州	月谷集	吳晋周(出) 吳泰周(系)
36	德暉	金光澤	1685~1742	德暉	存吾齋		光山		金鎮華 子
37	雨啓	金龍澤	?~1722	德雨	孤松軒		光山		金鎮華 子
		李天紀	1684~1722	啓元			全州		李思永 子
38	叔範	俞度基	1687~1724	叔範			杞溪		俞命賚 子
39	仁甫	李岳鎮	1694~1721	仁甫			德水		李奮 子
40	魯瞻	金泰行	1687~1753	魯瞻			安東		金時和 次子

詩次	詩題	人名	生沒年度	字	號	諡號	本貫	文集	備考
41	義瑞	洪龍祚	1686~1741	義瑞			南陽		洪璠 四子
42	士晦	李顯之		士晦			全州		李益命 子
43	紀有衡元	洪昌漢	1698~?	大紀			豐山		洪萬衡 孫
		朴大源		有道			潘南		朴師益 子
		申埜		衡輔			平山		申晷 孫
		申學	26세 졸	元固			平山		申晷 孫
44	子安	李國輔		子安			延安	李命臣 子	
45	士和四兄弟	金時侃	1693~1766	士和	海仙		安東		金盛道 長子
		金時翰	1695~1773	士鷹	耿菴		安東		金盛道 次子
		金時筵	1698~1755	汝仲			安東		金盛道 三子
		金時燾	1700~1766	稚明	笥泉·靜慎		安東		金盛道 四子
46	希文兄弟	李勉之	1690~1722	成一	希文		全州		李健命 長子
		李述之	?~1722	孝善			全州		李健命 子
47	士常	金時發	1683~1742	士常	默齋		安東	金盛益 長子	
48	仲明五兄弟	金時哲	1687~1763	仲明	耻菴		安東		金盛益 次子
		金時述	1689~1758	士紹	敬齋		安東		金盛益 三子
		金時吉	1691~1762	士迪			安東		金盛益 四子
		金時訥	1698~1742	士一	養齋		安東		金盛益 五子
		金時逸	1700~1773	士敏			安東		金盛益 六子
49	聖脩	金遠祚	1695~?	聖脩			金海	金俊熙 子	
50	禹一卿兄弟	禹世一	1670~?	一卿			丹陽		禹錫疇 子
		禹世準	1675~?	準卿			丹陽		禹錫疇 子
51	太白	金鎮商	1684~1755	汝翼	退漁堂		光山	退漁堂集	金萬重 次子
52	益甫三兄弟	趙鼎彬		重甫			楊州		趙泰采 長子
		趙觀彬	1691~1757	國甫	晦軒	文簡	楊州	晦軒集	趙泰采 次子
		趙謙彬	1692~?	益甫			楊州		趙泰采 三子
53	老彭	尹志述	1696~1721	老彭	北汀	正愍	漆原		尹景績 子
54	伯雨	金春澤	1670~1717	伯雨	北軒	忠文	光山	北軒居士集	金鎮龜 長子
55	仲行致仲	金雲澤	1673~1722	仲行	白雲軒	忠貞	光山		金鎮龜 三子
		金民澤	1678~1722	致仲	竹軒		光山	竹軒集	金鎮龜 四子
56	洪惠伯	洪啓迪	1680~1722	惠伯	守虛齋	忠簡	南陽	守虛齋遺稿	洪禹錫 子
57	寒圃齋	李健命	1663~1722	仲剛	寒圃齋·霽月齋	忠愍	全州	寒圃齋集	李敏敘 子
58	趙相國	趙泰采	1660~1722	幼亮	二憂堂	忠翼	楊州	二憂堂集	趙禧錫 子
59	遂庵	權尙夏	1641~1721	致道	遂庵·寒水齋	文純	安東	寒水齋集	權格 子
60	鄭判書	鄭澔	1648~1736	仲淳	丈巖	文敬	延日	丈巖集	鄭慶演 子
61	芝村	李喜朝	1655~1724	同甫	芝村·艮菴	文簡	延安	芝村集	李端相 子
62	申判書	申鉉	1642~1723	和仲	寒竹堂	忠景	平山		申命圭 子
63	閔判書	閔鎮遠	1664~1736	聖猷	丹巖·洗心	文忠	驪興	丹巖漫錄	閔維重 子
64	李判書	李觀命	1661~1733	子賓	日休亭·屏山	文靖	全州	屏山集	李敏敘 子
65	李判書	李宜顯	1669~1745	德哉	陶谷	文簡	龍仁	陶谷集	李世白 子
66	任判書	任望	1640~1724	大仲	水村·愚拙翁	文僖	豐川	水村集	任義伯 子
67	宋判書	宋相琦	1657~1723	玉汝	玉吾齋	文貞	恩津	玉吾齋集	宋奎濂 長子
68	李熙卿	李緯	1680~1746	熙卿	陶菴·寒泉	文正	牛峯	陶菴集	李晚昌 子
69	李弘述	李弘述	1647~1722	士善		忠貞	全州		李錫漢 子
70	尹愨金時泰	李愨	1665~1724	汝誠		忠愍	咸安		尹弼商 子
		金時泰	1682~1722	大來			安東		金盛久 子

詩次	詩題	人名	生沒年度	字	號	諡號	本貫	文集	備考
71	玄德明	玄德明							여항인 李弘述 軍官
72	李命龍	李命龍					全義		李行進 庶從孫
73	崔振暹	崔振暹							咸鏡道 驛吏
74	居士	崔春金	?~1714						金昌翁 從者 金器夏 奴
75	雄師	致雄							金剛山 僧侶 金昌翁 교유
76	李淳昌丈	李益命		謙叔			全州		李頤命 弟
77	竹泉金丈	金鉞圭	1658~1716	達甫	竹泉	景獻	光山	竹泉集	金萬基 次子
78	西川君	李梲					全州		宣祖 四世孫
79	安員外丈	安綏	1651~?	子柔			竹山		安廷燦 子
80	雲岡臺	金時和	1657~1720	仲平	竹下		安東	竹下詩集	金盛宙 次子
81	龔齋	金時保	1658~1734	士敬	茅洲·楓溪 主人·龔齋		安東	茅洲集	金盛遇 次子
82	趙尙州丈	趙正萬	1656~1739	定而	寤齋	孝貞	林川	寤齋集	趙景望 次子
83	楊澄	楊澄			二橙			二橙集	中國人 金昌業 교유
84	程洪	程洪		度容					中國人 金昌業 교유
85	踈齋	李頤命	1658~1722	養叔	踈齋	忠文	全州	踈齋集	李敏迪 子
86	舅氏	李杓	1654~1724	健仲			全州		林原君
87	盛全叔	金盛全	1663~1734				安東		金壽男 子
88	文化兄	金養謙	1675~1728	太沖			安東		金昌翁 長子
89	文義兄	金致謙	1677~1728	若虛			安東		金昌翁(出) 金昌國(系)
90	敦甫兄	金厚謙	1687~1727	敦甫			安東		金昌翁(出) 金昌立(系)
91	文行	金文行	1701~1754	士彬	華陰		安東		金致謙 子
92	益謙	金益謙	1701~1746	日進	潛齋		安東	潛齋稿	金昌國 庶子
93	卑謙兄弟	金卑謙 金允謙	1698~1748 1711~1775	汝牧 克讓	眞宰		安東		金昌業 庶子 金昌業 庶子
94	士三	金省行	1696~1722	士三			安東		金濟謙 長子
95	峻行達行 坦行	金峻行	1701~1743	德仲			安東		金濟謙 次子
		金達行	1706~1738	修甫			安東		金濟謙 四子
		金坦行	1714~1774	叔平			安東		金濟謙 五子
96	元行	金元行	1702~1772	伯春	溪湖·雲樓	文敬	安東	溪湖集	金濟謙(出) 金崇謙(系)
97	由行	金由行	1706~1760	汝勇			安東		金祐謙 子
98	鳳祥	李鳳祥	1707~?	儀韶	雪川	文敬	全州		李器之 子
99	老嫗	韓末禮	1637~1711						外曾祖母 侍女
100	乳母	金勝玉	1668~1746						金信謙 乳母
101	季母	金昌立妻	1666~1746				全州		李敏敍 女
102	外姑	丈母金氏					光山		金萬重 女 李頤命 妻
103	鳳內	李鳳祥妻	1708~1750				安東		金濟謙 長女
104	雄甲	金亮行	1715~1779	子靜	止庵·驪湖	文簡	安東	止庵集	金信謙 長子
		金贊行	1718~1724	老甲			安東		金信謙 次子
105	室人	妻李氏	1692~1724				全州		李頤命 女
106	自詠	金信謙	1693~1738	尊甫	檜巢	文敬	安東	檜巢集	金昌業 三子